

유아의 또래 공격성 피해와 자아 개념, 과잉 행동성, 내재적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련성*

The Effects of Self-Concept, Hyperactivity, and Behavioral Problems on Peer Harrassment in Preschool Childre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신 유 림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oo Lim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peer harassment in preschool children and assess its influence on self-concept, hyperactivity, and behavioral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4 and 5 year old children recruited from preschools and day care centers. Results indicated that a small group of children were identified as victims by self and teacher-reports. Negative self-concept and hyperactivity predicted self-reported victimization. In addition, hyperactivit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significant contributors in teacher reported victimization.

주제어(Key Words) : 공격성 피해(victimization of peer aggression), 자아개념(self-concept), 과잉행동성(hyperactivity), 문제 행동(problem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 Yoo 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G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7 Fax: +82-2-2164-4485 E-mail: yoolim@catholic.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1-C00267).

I. 서론

유아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처음으로 안정된 또래집단과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또래관계는 유아기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관계는 유아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유아들은 공격적인 성향의 또래들로부터 공격성의 피해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또래 공격성의 피해란 한 유아가 지속적으로 다른 유아들의 부정적인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때리기, 발로 차기와 같은 신체적 피해와 놀리기, 홍보기 및 배척하기 등과 같은 관계적 피해 행위를 포함한다(Kochenderfer & Ladd, 1996). Olweus(1994)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으로 공격성의 피해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공격적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둘째,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셋째, 공격성의 가해 및 피해 유아 사이 힘의 불균형 관계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피해 유아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발달에 따른 공격성 피해 집단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Olweus(1978)는 8세에서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 아동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8세에 8%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감소하며 16세에는 5%로 나타났다.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에서는 약 18% 유아들이 피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학령기에 보고된 피해 빈도에 비해 더욱 높은 빈도이다.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연구결과를 보면, 5-7세 유아의 경우 약 10%가 잠재적인 피해 유아였고(Alsaker & Valkanover, 200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 가 되면 5%로 감소하였다(Olweus, 1994). 즉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비해 유아기에 피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또래 공격성의 피해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보면, Kochenderfer와 Ladd(1996)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피해(놀리기), 신체적 피해(때리기, 발로 차기), 직접적 언어 피해(나쁜 말하기), 간접적 언어 피해(타인에게 홍보기)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Alsaker와 Valkanover(2001)는 간접적인 공격성,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 및 소유물 관련 괴롭힘(property-related victimization)을 포함하는 양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성에 따라 피해의 빈도에 차이를 보면 여아에 비해 남아가 피해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Kochenderfer & Ladd, 1996) 반면에 성에 따라 피해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Schwartz, Farver,

Chang, & Lee-shin, 2002)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격성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중 자아개념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또래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래 공격성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자아 존중감이 낮으며 비효율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춘재, 곽금주, 2000).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닌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주장하는 능력과 동기가 부족하며 이러한 특성이 공격성 피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Egan과 Perry(1998)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 개념 중 또래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친구가 없다고 지각한 아동들의 경우 불안하고 정서규제능력이 낮으며 갈등상황에서 위축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이 또래 피해와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비교해볼 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며(심희옥, 2002), 이런 아동들은 자기 주장능력이 낮고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특징이 또래들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원인일 수 있다(Olweus, 1994).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같은 사회인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조절능력의 결핍은 또래 관계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피해 유아들 중 공격적인 피해자(aggressive victims)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성의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들과 갈등을 겪는 동안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쉽게 흥분하게 된다(Tobin, Schwartz, Gorman, & Abou-ezzeddin, 2005).

또한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행동과 공격성의 피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의 문제 행동은 유아의 연령에 기초하여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방해가 되는 외현적 문제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내면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Achenbach와 Edelbrock(1981)에 의하면 내면적인 문제행동은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및 두려움과 같은 정서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외현적인 문제행동은 공격성 및 반사회성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지닌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서 거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행동 문제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Schwartz, McFadyen Ketchum, Dodge, Pettit, & Bates, 1998). 내면적 행동문제를 가진 유아들은 울거나 복종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또래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주게 될 수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반면에 외현적 행동문제를 지닌 유아들은 공격적이고 빈번하게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 특성으로 인하여 또래들로부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Perry et al., 1988). Schwartz et al.(1998)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기에 측정된 내면적, 외현적 문제, 과잉행동성 및 충동성과 미성숙/외존성이 3년 후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예언해주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 보면 고윤주, 김영신, 노주연(2000)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행동문제, 또래 수용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행동이 직접적으로 또래들로부터의 수용 및 거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숙과 유안진(1999)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는 또래들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또래 공격성의 피해를 예언해 주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사회적 자신감이 낮고 학교 부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또래관계 피해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유아들 대상으로 한 소수의 국외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Ladd와 Troop-Gordon(2003)의 종단적 연구결과를 보면, 학령전기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 적절한 조기 개입 없이 피해 경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 유아를 선별해보고 발생빈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국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아기 공격성 피해의 연구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유아를 대상으로 또래 피해를 측정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기인된다(Kochenderfer & Ladd, 1996).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는 지필 검사인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여 피해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Alsaker & Valkanover, 2001),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을 기초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측정법을 적용하여 유아기에 발생하는 공격성의 피해 유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과의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직접 보고하게 하는 유아 보고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사 보고법을 적용하여 평소 유아들의 또래 관계를 관찰 할 기회가 많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를 정보원으로 공격성의 피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연구목적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유아기 자아개념, 과잉

활동성 및 내면적, 외현적 행동과 같은 사회인지적 및 행동적 특성이 공격성의 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들의 어떤 특성이 피해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또래로부터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유인하고 동기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격성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아를 선별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또래 공격성의 피해 유아의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1) 유아 보고법 및 교사 보고법에 따라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성에 따라 피해 유아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자아 개념, 과잉행동성 및 내면적, 외현적 문제 행동은 또래 공격성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4세와 5세 유아 297명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상류층인 J시에 위치한 총 5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표집되었다. 대상 유아들은 남아가 166명이며 여아가 131명이었다. 유아들의 연령별 인원을 보면 만 4세 유아 81명(27.3%)과 만 5세 유아 216명(72.7%)이었다. 또한 5개의 유아교육기관의 18명의 담임교사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피해 유아 보고법

유아가 보고한 또래 공격성의 피해는 Kochenderfer와 Ladd(1996), Olweus(1994) 및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보고식 또래괴롭힘의 피해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피해, 언어적 피해, 사회적 배척 및 소유물에 관련된 피해의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들의 또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성의 피해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있다(예: 친구들이 나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다).

연구 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각 문항의 내용을 그림카드로 제작하고 각 유아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각 문항의 그림 카드를 제시하며 카드의 그림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시킨 후에 유아 자신의 생각을 질문한다. 예를 들어, '00이는 친구들이 놀이할 때 00이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라고 묻고 유아의 응답이 '있어요.' 면 다시 이 물음에 대해서 '그럼 00은 아주 자주 그래요? 가끔 그래요?' 라고 다시 부연 질문하고 각각 3점과 2점으로 각각 평정하고, '없어요.'는 1점으로 평정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634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유아들 중 피해 집단 유아들은 Perren과 Alsaker(2006) 및 Alsaker와 Valknover (2001)의 연구에서 적용된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 유아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SD)를 계산하고 평균에서 +1SD이상의 점수를 받은 유아들을 피해 유아들로 선정하고 나머지 집단을 일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공격성 피해 교사 보고법

교사가 측정한 또래 공격성의 피해는 Kochenderfer와 Ladd(1996), Olweus(1994) 및 Schwartz *et al.*, (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피해를 측정하는 교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교사가 학급 유아들의 또래관계 피해 정도를 평정하는 4점 척도이며 신체적 피해, 언어적 피해 및 사회적 배척의 3개 척도로 구성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아이들이 이 유아를 놀이 상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교사 보고법은 유아 보고법과 달리 학급에서 유아들 사이에 발생하는 공격성 피해에 대하여 교사가 관찰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하위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점수로 계산하여, 교사가 측정된 유아의 또래 피해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교사 보고법의 내적 일치도는 .824였다.

유아 보고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연구 대상 유아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SD)를 계산하고 평균에서 + 1SD 이상의 점수를 받은 유아들을 피해 유아들로 선정하고 나머지 유아들은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자아개념

유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sh와 Shavelson(1985)의 SDQ(Self-Description Questionnaire)를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한 이경화과 고진영(2006)의 유아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개 하위영역(부모관계 자아, 신체적 자아, 언어 자아, 수학 자아, 친구관계 자아 및 일반 자아)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 영역별로 5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예: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유아 개별 면접으로 실시하며 문항별로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시킨 후에 유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의 아이는 친구가 많은데 00은 친구가 많아요?' 라고 묻는다. 유아의 응답이 '나도 친구가 많아요.' 면 다시 이 물음에 대해서 '그럼 00은 아주 많아요? 조금 많아요?' 라고 다시 부연 질문한다. 유아의 응답이 '아주 많아요.'는 4점으로, '조금 많아요.'는 3점으로 평정한 다. 유아의 응답이 '친구가 많지 않아요.'는 '그럼 00은 아주 없어요? 조금 없어요?' 라고 다시 질문한다. 이에 대한 유아의 응답이 '아주 없어요.'는 1점으로, '조금 없어요.'는 2점으로 평정하였다. 자아개념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44로 나타났다.

4) 과잉행동성

유아의 과잉행동성은 교사용 ADHD rating scale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과잉행동성을 측정하는 9문항과 주의력결핍을 측정하는 9문항을 포함하여 총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잉행동성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893으로 나타났다.

5)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 행동은 Archenbach(1991)에 의해 개발되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부모 보고용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12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3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및 불안울 포함한 33개 문항의 내면적 문제 척도(예: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와 반사회성을 포함한 33개 문항의 외현적 문제 척도(예: 자주 싸운다.)를 사용한다. 부모님들께 아동의 문제 행동을 기술하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녀의 행동과 일치 정도를 2점에서 0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내면적 문제행동의 내적 일치도는 .845이었으며 외현적 문제행동은 .84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유아 문제행동척도는 담임교사를 통하여 어머니에 배부하고 작성이 완료된 후 회수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과잉행동성과 공격성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빈 교실에서 연구 보조자들에 의해 유아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자아개념검사와 또래 공격성의 피해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 보고법 및 교사 보고법에 의해 선정된 피

해 집단의 빈도 및 %를 계산하고 카이 검증을 사용하여 유아의 성별에 따라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두 가지 보고법에 의한 피해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 유아 보고법 및 교사 보고법으로 측정된 피해 점수와 자아 개념 및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로 계산하였다. 또한 유아 보고법 및 교사 보고법으로 측정된 피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 개념,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또래 공격성의 피해 유아의 빈도 및 성차

유아 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피해의 평균 점수에서 + 1SD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 유아들을 선별한 결과 18.5%인 55명의 유아가 피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동일한 기준을 교사 보고법에 사용한 결과에서는 13.5%인 40명의 유아들이 피해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유아 보고법에 비해 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하위 집단별 빈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카이 검증 결과에 의하면 유아보고 및 교사보고에 의한 하위 집단의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보고법 및 교사 보고법의 피해 점수 사이의 관계를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163, p < .01$). 즉 유아 자신이 피해 정도가 높다고 보고할수록 교사도 피해정도가 높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1〉 유아보고 및 교사보고에 의한 피해 유아의 빈도

유아보고	교사보고	피해 집단 빈도(%)	일반 집단 빈도(%)	소계 빈도(%)
피해 집단	8(2.7)	47(15.8)	55(18.5)	
일반 집단	32(10.8)	210(70.7)	242(81.5)	
합 계	40(13.5)	257(86.5)	297(100)	

$\chi^2 = .067, df = 1, ns$

〈표 2〉 유아 보고법에 의한 성별에 따른 피해 집단의 빈도

집 단	성	남아 빈도(%)	여아 빈도(%)	소계 빈도(%)
피해 집단		31(18.7)	24(18.3)	55(18.5)
일반 집단		135(81.3)	107(81.7)	242(81.5)
합 계		166(100)	131(100)	297(100)

$\chi^2 = .015, df = 1, ns$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 보고법의 피해 빈도에서의 차이를 카이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전체 55명 중 남아 31명이었고 여아는 24명으로 나타났으며, 카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성에 따른 교사 보고에 의한 피해 집단의 빈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으며, 전체 40명의 유아들 중 남자는 22명, 여자는 18명으로 나타났으며, 카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자아개념, 과잉행동성 및 문제행동이 또래 공격성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

또래 공격성의 피해와 자아개념, 과잉행동성 및 문제 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 보고법에 의한 피해 점수는 자아개념과 부적의 관계가 있었으며, 과잉행동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자신이 피해 정도가 높다고 지각한 유아일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으며, 과잉행동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 보고법에 의한 피해는 과잉행동성,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행동과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나, 자아개념 및 내면적 문제행동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개념, 과잉행동성 및 문제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유아보고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자아개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고 다음으로 과잉행동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현적 및 내면적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런 변인들은 유아또래 피해의 전체 변량 중 5.2%를 설명하였다.

〈표 3〉 교사 보고법에 의한 성별에 따른 피해 집단의 빈도

집 단	성	남아 빈도(%)	여아 빈도(%)	소계 빈도(%)
피해 집단		22(13.3)	18(13.7)	40(13.5)
일반 집단		144(86.7)	113(86.3)	257(86.5)
합 계		166(100)	131(100)	297(100)

$\chi^2 = .006, df = 1, ns$

〈표 4〉 또래 공격성의 피해와 자아개념, 과잉 행동성 및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

피해	행동특성			
	자아개념	과잉행동성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유아보고 피해	-.206***	.133*	.022	.101
교사보고 피해	.007	.410***	.135*	.127*

* $p < .05$. *** $p < .001$.

〈표 5〉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유아보고피해	자아개념	-.161**	.052	3.969**
	과잉행동성	.123*		
	외현적 문제	.110		
	내면적 문제	-.051		
교사보고 피해	자아개념	.033	.066	5.133***
	과잉행동성	.200***		
	외현적 문제	.120*		
	내면적 문제	.150*		

* $p < .05$, ** $p < .01$, *** $p < .001$.

교사보고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과잉행동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외현화문제와 내면적문제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예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인들은 교사보고 피해의 전체 변량 중 6.6%를 설명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같은 연령의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자기 보고법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의 피해 유아 빈도를 비교해보면 Alsaker와 Valkanover(2001)의 연구에서는 10%의 유아가 피해 집단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18.5%보다 낮은 빈도이다. 이는 연구 대상 연령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4-5세 인데 비하여 Alsaker와 Valkanover(2001)의 연구에서는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 비율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Olweus, 1994)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유사하게 피해 유아의 비율이 18%로 보고되었다.

유아 및 교사 보고법에 의해 선별된 피해 유아들의 빈도를 비교해보면, 교사보고에 비해 유아 보고법에 의한 빈도가 5% 정도 높았다. 유아 보고법은 유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다. 따라서 고의적인 따돌림이나 놀이 집단에서 소외당하기와 같이 은밀하게 발생되어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관계적 피해경험들을 유아들은 직접 보고할 수 있으므로(Graham & Juvonen, 1998), 자기 보고에 의한 피해 집단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유아 및 교사 보고법에 측정된 피해 점수는 유의미한 상관관이 있었으나($r = .163$), 상관계수의 값이 크지 않았으며 이는 공격성의 피해에 대한 유아 및 교사의 견해에 관련성 정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Kramer, Measelle, Ablow, Essex, Boyce와 Kupfer(2003)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특

정 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정보원에 따른 차이를 측정의 오차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보다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필수적이며 현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활용할 것을 제한한 바 있다.

유아 보고법을 통하여 유아의 또래 관계의 피해를 측정하는 방법은 피해 유아가 직접 괴롭힘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피해는 교실, 운동장 및 기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당사자인 유아가 생태학적으로 더욱 타당한 피해 경험을 보고할 수 있다. 반면에 교사를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교사 보고법의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개별 유아의 또래 관계에 대하여 교사가 잘 알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하루 일과의 특성에 기초해 볼 때, 교사는 또래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을 근거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Alsaker & Valkanover, 2001). 따라서 각각의 측정방법이 지닌 장점이 있으므로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유아기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유아의 자아개념은 교사 보고법의 피해에 대한 설명력이 없었으나 자기보고 피해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 보고법을 통하여 유아 자신의 내적인 요인이 측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유아 보고법은 유아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이는 자기보고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가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내적인 심리(intrapyschological) 변인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Graham & Juvonen, 1998)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자아개념은 유아 자신과 주변의 중요 인물에 대한 유아의 지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유아기 공격성의 피해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자아개념은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가 효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주는 내적 실행모델의 기능을 하며(Harter, 1998),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유아가 자신감을 갖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동기화 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또래와의 갈등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주장하는 능력과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므로(Egan & Perry, 1998), 또래들과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동기나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인 유아들에게 취약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개념과 유아 보고 피해와의 관련성은 친구관계 및 인기도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피해 상황에서 친구관계는 보호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 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요인일 수 있다(Schwartz *et al.*, 1999).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지닌 유아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 인기도가 낮으며 친구관계가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의 유아들은 학급 내에서 인기도가 낮고 친구가 없는 유아를 공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유아들은 공격성의 피해 상황에서 더욱 취약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자아 개념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횡단적 연구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은 유아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자아개념과 피해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과잉행동성은 유아보고 및 교사 보고 모두에서 피해를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행동성과 관련된 사회적 및 인지적 결핍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과잉행동성을 지닌 유아들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데 Cunningham과 Siegal(1987)의 연구에 의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성 유아와 정상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해본 결과,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성 유아는 부정적인 언어의 빈도가 높고 말이 지나치게 많으며 상호교환성의 정도가 낮았다. 또한 과잉 행동적 유아들은 정서 조절능력이 부족하므로 감정표현이 폭발적이고 정서 표현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일에도 과잉 반응하는 성향을 보인다(Saunders & Chambers, 1996). 이러한 특성들은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야기하게 되므로 쉽게 공격적인 유아들에게 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사회인지적 외곡 성향이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이에 기초해볼 때 과잉행동적인 유아들은 사회인지적으로 왜곡된 성향을 갖고 있으며(Bellanti, Bierman,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0), 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적대적인 귀인 양식을 보이고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인지적 특성이 공격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를 지닌 유아들은 교사가 보

고한 또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피해 집단을 동일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동질적인 집단이기 보다 서로 다른 행동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소극적 피해자(passive victims)와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로 구분하고 있다(Schwartz, 2000). 따라서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행동과 피해의 관련성은 이러한 피해 집단의 하위유형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를 보이는 내면적 문제 성향의 유아들은 또래들에게도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거부당하기 쉽다. 또한 걱정이 많고 위축된 성향으로 인하여 또래들의 공격성에 효율적으로 방어적이기 보다 복종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격자들에게 보상과 강화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외현적인 문제 성향을 지닌 유아들은 파괴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공격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외현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공격자들에게 맞서서 싸우거나 공격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격적인 유아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와 교사 보고법을 사용하여 유아기 공격성의 표적이 되는 일부 소수의 피해 집단을 선별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두 측정법은 관련성이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각각의 측정법이 지닌 장점을 고려하여 단일한 방법보다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개념, 과잉행동성 및 내재적, 외현적 행동 성향은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피해의 변량정도가 낮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들 이외에도 유아기 공격성의 피해를 설명해주는 가정 환경, 양육태도 및 애착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 설계로 인하여 현 시점의 피해 유아의 비율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나 종단적인 연구를 시행한다면 연령에 따른 피해 유아의 비율의 변화 뿐만 아니라 유아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공격성의 피해를 야기 시키는 사회인지적 및 행동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공격성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또래 관계 피해에 대한 예방적인 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래 공격성 피해의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피해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아의 자아개념 및 행동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들과 또래 피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아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 이경화, 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9(3), 107-121.
- 이춘재, 광금주(2000). 집단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 심리학회지*, 13(1), 65-80.
- Alsaker, F., & Valkanover, S.(2001). Early diagnosis and prevention of victimization.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r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M: University of Vermont.
- Ar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1). Behavior problems and competenc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 Bellanti, C. J., Bierman, K. L.,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2000). Disentangling the impact of low cognitive ability and inattention on 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66-75.
- Crick, N. R., & Dodge, K. A.(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unningham, C. E., & Siegel, L. S.(1987). Peer interaction of normal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ed boys during free-play, cooperative task, and simulated classroom situ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247-268.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Graham, S., & Juvonen, J.(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587-599.
- Harter, S.(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 In W. Damon (Series Ed.), and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267-283.
- Kramer, H., Measelle, J. R., Ablow, J. C., Fsex, M. J., Boyce, W. T., & Kuperfer, D. J.(2003). A new approach to integrating data from multiple informants in psychiatric assessment and research: Mixing and matching contexts and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10), 1566-1577.
- Ladd, G. W., & Troop-Gordon, W. P.(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47(5), 1344-1367.
- Marsh, H. W., & Shavelson, R. J.(1985). Self-concept: Its multifaceted, hierarchical structure. *Educational Psychologist*, 2(1), 107-125.
- Perren, S., & Alsaker, F. D.(2006). 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of victims, bully-victims, and bullies in kindergart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 45-57.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199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John Wiley.
- Saunders, B., & Chambers, S. M.(1996).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Peer interactions and collaborative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3(4), 333-340.
- Schwartz, D.(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81-192.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chwartz, D., McFadyen-Ketchum, Dodge, K. D., Petit, G. S., & Bates, J. E.(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87-99.
- Schwartz, D., McFadyen-Ketchum, Dodge, K. D., Pettit, G. S., & Bates, J. E.(1999). Early behavior problems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3), 191-207.
- Tobin, R. L., Schwartz, D., Gorman, A. H., & Abou-esseddin, T.(2005). Social cognitive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9-346.

접 수 일 : 2008년 4월 29일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08년 6월 30일